



세계 교육은 지금

[미국] AFT,

전국 표준학력기준의 필요성 역설

랜디 윈거튼(Randi Weingarten) AFT 회장은 4월 29일 교육 및 노동부 하원위원회 청문회에서 학생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엄격하고 통일된 학력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우리는 지금 무선환경이 지배하고 순식간에 다른 곳과 접속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지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동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들이 원해서든, 상황에 따라서든 자신들이 교육을 받고 자란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주(主)마다 제각각 다른 학력기준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능력과 잠재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했다.

AFT가 통일된 학력기준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5년부터 각 주(主) 학력기준의 명확성과 특수성을 평가해왔다.

윈거튼 회장에 따르면 AFT의 연구결과, "교육과 학습 개선을 위한 학력기준 개발에 있어 미국은 별다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결론이다.

그녀는 각 주(主)의 학력기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는 그 기준들이 건강한 교육시스템의 기초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지식은 지식을 토대로 쌓입니다. 이는 것이 많을수록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시작부터(아니, 그 전이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신중하게 계획된 순서에 따라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학력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주마다 다른 학력기준에 따른 문제점에 더불어, AFT 회장은 낙오학생방지법(NCLB)의 학업성취도 평가방법이 일관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낙오학생방지법의 '연간 적정 향상도(AYP)' 측정법을 위해 사용되는 벤치마크 기준 역시 주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그녀는 "수퍼볼 경기에서 터치다운을 해야 하는데 한 팀은 7야드만 뛰면 되고, 다른 한 팀은 10야드를 뛰어야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화나고 억울하겠습니까. 나아가 이런 시나리오를 미식축구연맹이 승인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런 시스템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AFT의 회장으로 선출된 후 윈거튼 회장은 2009년 2월 워싱턴 포스트 사설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식채널을 통해 통일된 학력기준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왔다.

표준학력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그녀가 제안한 것은 선출직 관리공무원, 교육자, 지역사회 리더, 교육학 및 교육콘텐츠 전문가의 파트너십 구축이다.

이들이 파트너가 된다면 함께 표준학력기준을 만들어 국가적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녀는 또한 'Race to the Top' 기금(교육개혁지원금의 일환)을 이용하여 전국 공통의 학력기준을 만들자는 교육부 장관 아론 던컨(Arne Duncan)의 계획에 지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청문회 전날, 윈거튼 회장은 엄격한 국가 표준 학력기준 마련에 대한 AFT의 강력한 지지 입장을 내용으로 한 서한을 던컨 장관에게 전달했다).

윈거튼 회장은 "마법과 같은 개혁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는 공교육의 구성요소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나누었고, 각각의 요소를 진공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실수였다."라고 설명하며, 공통 학력기준 시스템이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다른 요소와 동시에 갖춰야 할 필수조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녀는 교원의 신규채용 및 유지, 좀 더 연관성이 높은 전문성 개발, 알찬 커리큘럼,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근무 및 수업 환경개선, 조기교육 및 포괄적인 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책무성 프레임워크 등을 위해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AFT 웹사이트)

[미국] 교직원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메트라이프 재단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5회 연례조사 결과, 교직의 발전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전망, 특히 도시지역 교육에서는 몇몇 중요한 경고사항이 제기됐다.

메트라이프가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교육자, 행정이, 학생들의 응답에 따르면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열정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놀랍게도 이 조사에 참여한 교사 중 98%가 가르치는 일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했다.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응답자 중 64%, 1984년에는 40%)은 늘어나고 있으며 자신이 수업을 위해 잘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도 1984년 46%였던 것에서 3분의 2로 늘어났다.

특히 학생들에게 역시 교사가 될 것을 권하는 교사들의 수가 늘어나, 1984년 21%에서, 2009년 조사에서는 75%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교사가 될 것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랜디 윈거튼 AFT 회장은 "AFT는 선생님들이 전문직으로서 존경받고,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트라이프 조사 결과는 우리가 이뤄낸 성과를 보여줍니다."라고 말했다.

윈거튼 회장은 대다수의 교사들이 자신의 직업, 학교, 동료교사의 지지, 학부모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의 학생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윈거튼 회장은 메트라이프 조사결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경고했다.

도시지역 학교의 교사들은 비도시지역 교사들에 비해 소속학교의 훈육정책(disciplinary policy)이 '매우 훌륭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각각 60%, 74%). 도시

지역 교사들과 농촌 및 교외지역 교사들 간의 이러한 차이는 충분한 수업기자재, 학부모 활동, 높은 수준의 학력기준에 대한 조사항목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력기준이 '매우 훌륭하다'고 응답한 도시지역 학교의 교사는 45%에 불과한 반면, 교외지역 학교의 교사는 6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3분의 2 이상(67%)의 도시지역 교사들이 자신의 학생 중 적어도 4명 중 1명은 해당 학년에서 배우도록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한 반면, 교외지역의 교사들은 23%만이 이 문제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했다.

윈거튼 회장은 "조사결과를 보면, 학교를 개선시키고 학생들이 일련의 학력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최근 요구사항인 전국 표준학력기준이 필요함을 절실히 알 수 있습니다. 덧붙여 우리가 그러한 지원을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지원'에는 알찬 핵심 커리큘럼,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평가, 업무중심의 전문성 개발, 안전하고 정돈된 환경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메트라이프 설문조사는 전국 K-12(유치원~고등학교) 공립학교 교사 1천명과 교장 50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온라인 조사로 3-12학년 학생 902명도 포함됐다. 최근 조사결과와 다음과 같다.

> 교사 중 3분의 2(1984년에는 37%)가 교직이 남부럽지 않은 수준의 월급이라고 답했다.

> 수업자료가 아주 훌륭하다고 답한 도시지역 학교의 교사는 3분의 1에 불과해 전국 평균치인 54%를 크게 밑돌았다.

> 가난이 배움에 장애가 된다고 응답한 교사는 1992년 41%에서 2009년 50%로 늘어났다.

> 22%의 교사들은 영어실력의 부족으로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답했으며, 도시지역 교사들의 30%가 그렇다고 답했다.

> 48%의 교사들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라고 답했으며, 교장 중 79%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교사들의 성취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평가 및 기타 사항에 대해 교장과 교사의 불일치는 조사자들에게 의해 연구되어야 할 주제 중 하나라고 지적됐다.

(출처 : AFT 웹사이트)

[EI] 2009 유럽지역위원회

교육 부문 및 교원 보수에 대한 경제위기의 여파는 4월 20-21일 브뤼셀에서 열린 EI 유럽지역위원회의 최대 이슈 중 하나였다.

EI 유럽지역위원회에는 EU사안들을 다루는 기구인 ETUCE(유럽조합위원회 교육부문)의 집행이사회가 포함된다.

위원회는 새로운 유럽지역조직의 시행세칙 개정안, 양성평등과 고등교육 상임위원회의 보고서 및 권고안, EU의 교육부문의 현안에 대한 기타 다양한 보고서 및 정책 보고서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의 남녀공학 교육,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경제위기 시대의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 등에 대한 권고안들을 승인했다.

또한, 위원회는 11월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지역회의 개최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EU 및 EFTA(유럽 자유 무역 연합) 국가 교육부문의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의 개발에 대한 보고서와 기타 다양한 EU 관련 사안들이 위원회에 접수됐다. 자세한 내용은 ETUCE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위원회 위원들은 여교원의 연금 개정에 대한 최종보고서, 교원 보수에 대한 ETUI(유럽노동운동원)/EU/ETUCE 연구의 결과보고서를 접수했다.

이 보고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회원단체들에게 출력물로 배포될 예정이다. 더불어 최종판이 완성되면, EI 유럽조직 웹사이트에도 탑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3개의 단체가 처음으로 위원회에 참석했다. 몰도바, 몬테네그로가 국가 대표로 임명되었으며, 독일 교원단체 VBE의 기타 줄머(Gita Zollmer)가 위원회 위원인 VBE의 루드비히 에킹거(Ludwig Eckinger) 회장을 대신하게 됐다.

수년간 VBE 회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루드비히 회장은 퇴임을 맞이했다. 루드비히 회장은 EI 및 WCOTIP(세계교직원총연합)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출처 : EI 웹사이트)

[EI] 2011 세계총회 남아공에서 개최

EI 집행이사회는 2011년 EI 세계총회의 개최지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으로 확정했다. 총회는 2011년 7월 19일-26일 케이프타운 해안가의 호텔 밀집지에 위치한 국제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다. 회의 용도의 이 대형센터는 EI 총회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집행이사회는 일반 토론 시간을 늘리기 위한 총회 프로그램의 일부 변경사항 역시 승인했다. 본과 회의는 총회 3일째에 열리며, 대의원들 및 참석자들이 시내와 인접지역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일찍 종료될 예정이다.

(출처 : EI 웹사이트)

1년 365일
구름 한 점 없이
싱싱한 은행, 수협은행

하늘의 구름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듯,
비디의 싱싱함과 깨끗한만큼
고객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년 365일 구름 한 점 없이 싱싱한 은행, 수협은행

싱싱한 은행
수협은행
www.ssyh.co.kr